군종주보

2019년 10월 20일(제951호)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하느님을 알게 되셨나요? 어떤 이는 가족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이웃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소문을 통해서 등 하느님을 만난 경로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전교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계시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보이지 않으셨던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듣는다'라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듣는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먼저 이야기해주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 세상에 하느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만 하느님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과 말을 함께 실천하심으로 세상에 하느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을 믿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할 선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선교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스스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새로운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생각해봅시다. 혹시 성당에서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향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홍용택(테오필로) 신부
통해(22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이도기 바오로

성인명: 이도기 바오로 (李道起 Paul)

신분: 도공, 순교자

활동연도: 1743-1798년

1743년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난 이도기(李道起) 바오로는 고향에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본디 그는 글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천주교의 덕행만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후에 이 바오로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게 되자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가족과 함께 청양을 떠나 산 너머에 있는 정산으로 이주한 뒤에, 그곳 옹기점에 터전을 잡았다.

1797년, 이 바오로의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정사박해가 발생하였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한 비신자가 와서 '천주교인들의 두목으로 고발하겠다.'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이 난 그의 아내가 도망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신입 교우들이 자신의 행동에 걸려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해 6월 8일 이 바오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포졸들이 나타나 그를 체포하였다. 이내 포졸들은 십자고상과 교회 서적 몇 권을 찾아낸 뒤, 그에게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면서 매질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산 관아로 끌려간 이 바오로는 자주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때때로 포졸들은 그를 장터로 끌고 나가 모욕을 주거나 매질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배교를 강요하는 관장 앞에서 용감하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곤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오로는 자주 굶주렸고, 혹독한 추위로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앉거나 눕거나 끊임없이 천주를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천사의 말을 전해 주는 목소리를 듣고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럭저럭 1797년이 지나고, 1798년 새해가 밝았다. 이 바오로는 다시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하루는 관장이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하자, 그는 "정산 고을을 전부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옥으로 찾아오는 아내와 교우들을 물리쳤다. 6월 10일 아침, 포졸들이 와서 사형 집행일이 되었다고 알려 주자, 이 바오로는 기쁨에 넘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였다. 이윽고 그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정산 형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주변에 모인 비신자들까지 이 형벌에 가세하였다.

이 바오로는 여러 차례 실신하였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매를 맞았다. 그리고 버려진 채로 있게 되었다. 이틀 후 저녁 무렵, 관장은 그의 죽음이 궁금하였는지 '가서 살펴보고 죽지 않았으면 아주 죽여 버리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포졸들은 이 명령에 따라 그의 몸을 잔인하게 짓이겨 버렸다. 이제 이도기 바오로의 몸은 더 이상 사람 꼴이 아니었으니 그때가 1798년 7월 24일(음력 6월 12일)로, 순교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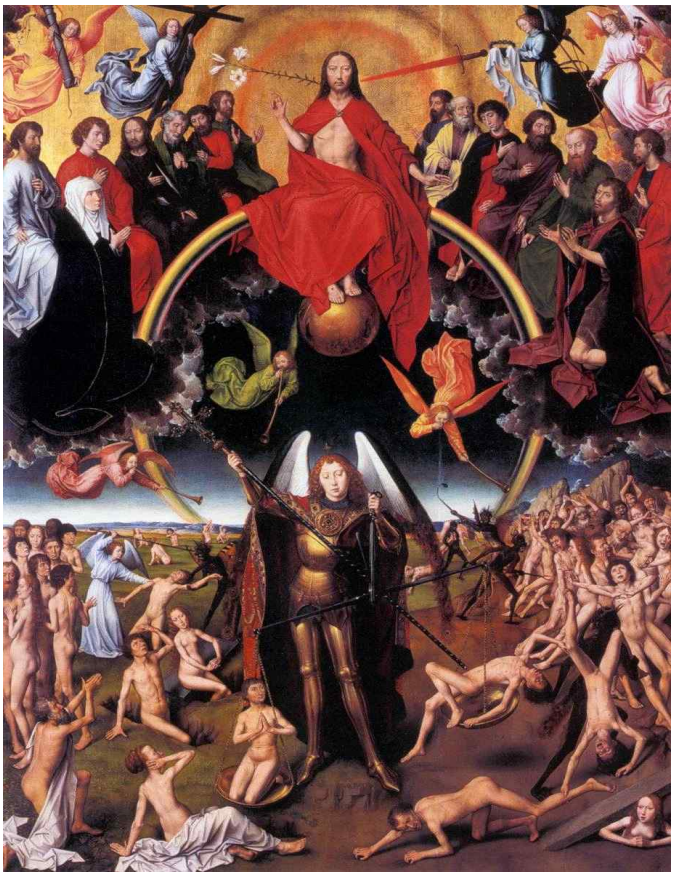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게 들려준 그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름
작게 작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성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한스 멤링, 1467~1471년경 제작 중앙패널 부분
나무 위 유화, 중앙:221x161cm
단스크 미술관, 폴란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무지개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분리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지구를 상징하는 금색 원구를 밟고 계신다. 자세히 보면, 이 구의 아래쪽 동그란 부분에 미카엘 천사의 두상 뒷면을 비롯해, 그림 맞은편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려져 있다. 예수님 좌우에 12제자와 성모님, 사도요한이 위치하여 있으며,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그려진 백합은 자비를,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검(칼)은 정의를 상징한다.

천사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수난 도구를 들고 있고, 일부는 천상의 나팔을 불고 있다. 아름다운 날개와 화려한 겉옷을 두른 대천사 미카엘은 천사 복장 대신 군인의 갑옷을 입고 있으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주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로 죄인의 몸을(고리를 꼬치에 찍듯이) 찍어 지옥에 던질 것이다. 미카엘 천사의 반짝이는 갑옷에도 그림 맞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종의 아비규환처럼 그려져 있어, 그림의 바깥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하게 한다. 즉 우리가 서 있는 그림 바깥 공간이 그림 안 공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도 이러한 거울에 비친 장면들을 통해 이곳에 함께 위치하는 것이다.

배경을 보면, 지상의 왼쪽에 선인이 위치한 부분은 녹음이 가득하지만, 악인이 위치한 오른쪽 부분은 민둥산 및 허허벌판이다. 악마는 악인들의 영혼을 낚아채 가며, 미카엘 대천사 왼쪽으로 한 영혼을 두고 씨름하고 있는 천사와 악마도 눈에 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장애부대 이지성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0월 20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10월 22일(화) 15:00, 교구청 회의실
- **성요셉(부사교) 성당 사목방문 및 준·부사관 격려 방문**
  때: 10월 23일(수)
- **은성대(19전비단)&증평103위성인(37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10월 24일(목)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세미나 및 정기이사회**
  때·곳: 10월 25일(금)~26일(토), 네스트 호텔 인천